

中 왕복항공료 20만원 시대

한-중 항공사 요금인하 경쟁 불붙어

단돈 20만원으로 중국을 다녀올 수 있게 됐다. 이는 중국 항공사의 운임 인하 덕분인데, 앞으로 아시아나항공, 대한항공 등 국적 항공사들도 요금을 낮출 움직임이어서 한-중간 운임인하 경쟁은 더욱 본격화될 전망이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중국 동방항공은 산둥(山東) 성내 칭다오(靑島)-인천간 항공운임(왕복)을 지난달 28일 40만원에서 24만원으로 낮춘 데 이어 10일부터 20만원으로 추가 하향 조정했다.

엔타이(烟臺)-인천간 운임은 45만원에서 24만원, 대표적인 휴양지 하이난다오(海南島)의 산야(三亚)-인천 구간은 55만원에서 26만원으로 각각 낮췄다.

인하폭으로 따지면 중전의 50%가 넘는 수준이다.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 국적항공사의 서울-제주 간 성수기 왕복 운임(18만5천800원)과 비교해도 큰 차이가 없다.

지난 9일부터 주 2회 신규 취항한 닝보(寧波)-인천 간 요금은 24만원이다.

국내 항공사들의 움직임도 바빠졌다. 아시아나항공은 오는 25일부터 35만원인 엔타이-인천 구간의 요금을 20만원으로 낮추기로 했으며 다른 노선에서도 운임 인하를 검토 중이다. 대한항공도 "앞으로 중국 여러 노선에서 공급 증대 및 경쟁 심화가 예상됨에 따라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대응을 할 계획"이라고 말해 곧 가격 인하를 준비중임을 내비쳤다. /연합뉴스

자동차들 다이어트 경쟁

알루미늄 차체·마그네슘 엔진 등 속속

고유가 시대를 맞아 자동차의 중량도 '마이크'를 선택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자리 잡고 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차량의 중량을 1% 가볍게 할 경우 연비는 0.5~0.6% 개선되는 만큼 연비를 향상시키는 차원에서 각 업체마다 '자동차 경량화'를 위한 신소재 개발 및 금속 빼기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현재까지는 국산차 보다 수입차에서 경량화의 사례를 더 많이 찾아볼 수 있다.

아우디의 경우에는 1993년 일체형 알루미늄 차체 기술인 ASF를 개발, 이듬해부터 최고급 모델인 A8에 적용하고 있다. 알루미늄은 가벼우면서도 강성이 뛰어나고 부식에 강해 항공기를 만드는 주 재료로 쓰인다.

A8의 경우 차체 자체가 100% 알루미늄으로 제작되기 때문에 차체의 강성은 높아지는 반면 무게는 동급 차종에 비해 최고 50% 이상 적게 나가 엔진과 트랜스미션의 성능을 극대화시킨다는 게 아우디측의 설명이다.

현대차의 에쿠스도 2003년달 신행 에쿠스를 출시하면서 트렁크 부분을 알루미늄으로 제작해 6.6kg 감량에 성공했고, 캐딜락과 사브는 후드와 뒷문 등에 알루미늄을, 인피니티의 M35와 M45 모델은 4개 도어와 후드 및 트렁크에 알루미늄 합금을 적용하고 있다.

지난 6월 국내에 출시된 혼다의 고급 세단 레전드는 엔진 일부를 마그네슘과 알루미늄을 적용, 경량화와 동시에 '작은 엔진'으로 태어났으며, 차체 곳곳이 경량합금 소재로 제작돼 기존 재질과 비교할 때 151kg 가벼워졌다. /연합뉴스

삼성·LG전자 유럽최고 권위 기술상 석권

삼성전자가 LG전자는 유럽 최고 권위의 기술상인 'EISA(유럽영상음향협회) 어워드'에서 각각 4개 부문과 3개 부문에서 최고 제품 수상작으로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

EISA 어워드는 비디오, 오디오, 홈시어터 분야 등 유럽 19개 국가 50개 매거진이 선정하는 유럽 최고 권위의 기술상으로, 이번엔 선정된 제품은 삼성전자의 LED LCD TV 기술과 홈시어터, 포토프린터, 울트라 모바일 PC Q1, LG전자의 42인치 타임머신 PDP TV와 세계 첫 벽걸이 프로젝터, 슈퍼멀티 DVD 레코더 등이다.

삼성전자는 EISA의 4개 부문에서 수상작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특히 이노베이션 어워드를 수상한 LED LCD TV 기술의 경우 타 수상작과는 달리 이 기술을 채용한 LCD TV 전 모델에 EISA 마크를 부착할 수 있어 마케팅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또 LG전자의 첫 벽걸이 프로젝터(모델명 AN110)는 EISA 어워드에서 앞서 양대 기술혁신상인 CES 혁신상과 레드닷(red-dot) 디자인의 'Best of the Best', iF디자인의 '황금상(Gold Award)', 미국 산업디자인협회(IDSA)의 '황금상(Gold)' 등 디자인상을 받은 바 있다. /연합뉴스

'러브호텔' 경매 쏟아진다

경영난으로 경매시장에 출회된 여관, 모텔 등 속칭 러브호텔이 광주·전남지역에서 상반기동안만 376개나 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같은 물건 출회는 지난 2004년 9월 성매매특별법 시행 이후 러브호텔의 경영난이 심화된 탓에 급증추세에 있으며, 울산반기 광주·전남지역 경매 건수가 법 시행이전인 2004년 상반기의 3배에 달하고 있다.

15일 경매정보업체인 지지옥션에 따르면 올 상반기 광주·전남에서 경매에 부처진 숙박시설 물건은 총 376건으로 지난해 상반기 244건보다 54%(132건) 늘어났으며, 법 시행 이전인 2004년 상반기 130건보다는 246건, 3배나 증가했다.

성매매특별법 시행 이후 불황 등 악재... 경영난 심화

올 상반기만 광주·전남 376개...2004년보다 3배 급증

이들 물건의 총 감정가가 2004년 상반기 138억9천만원에서 올 상반기에는 1천165억3천만원으로 무려 739%(1천26억4천만원) 늘어났다.

이처럼 숙박시설이 대거 경매시장에 쏟아지고 있는 것은 상당수 숙박업소들이 성매매특별법을 위기로 한 정부의 규제 속에 공급과잉과 불황 등의 악재로 영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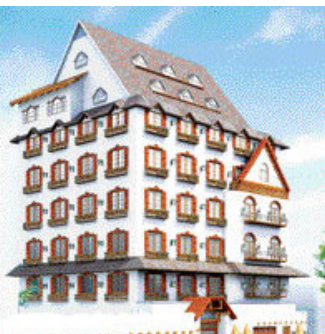
특히 경제 물건이 넘쳐나면서 낙찰가율(감평가 대비 낙찰가)도 급락하고 있

다. 광주·전남 숙박업소의 낙찰가율은 2004년 상반기 47.3%에 달했지만 지난해 상반기 39.4%로 떨어진다 이어 올 상반기에는 36.2%까지 추락했다. 감정가가 10억원짜리 모텔의 경우 낙찰가가 2004년 4억7천만원에서 올해 3억6천만원에 2년새 23.4%(1억1천만원) 하락한 셈이다.

더구나 낙찰가율이 떨어지자 경매가 성사되는 확률은 10분의 2수준에 그치고 있어 숙박업소의 경영난을 실감케 하고 있다. 광주·전남의 경우 올 상반기

광주·전남	진행건수	낙찰건수	낙찰율	낙찰가율
2004 상	130	22	16.9	47.2
2004 하	193	27	13.9	36.0
2005 상	244	49	20.1	39.4
2005 하	393	60	15.2	42.2
2006 상	376	77	20.5	36.2

(자료: 지지옥션)



376건이 경매에 부처진 가운데 77건만이 낙찰돼 20.5%의 낙찰률을 보였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저가 낙찰은 물론 주인을 찾지 못하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실제 광주시 북구 중흥동의 C모텔은 지난해 10월 감정가 12억3천915만원에 경매에 부처진 이후 6번이나 유찰됐으며, 지난해 6월 7회차 경매에서 감정가의 25.1%인 3억1천150만원에 팔렸다. 광주시 동구 수기동의 A모텔도 지난해 7월 감정가 13억840만원에 경매에 부처진 이후 5번이나 유찰됐으며, 지난 3

일 열린 6회차 경매에서는 감정가의 28.7%인 3억7천514만원까지 떨어졌지만 주인을 찾지 못했다. 지지옥션 강은 팀장은 "러브호텔의 퇴출이 가속화된 것은 공급과잉과 장기적인 경기불황, 성매매특별법 시행 등 악재가 겹쳤기 때문이다"며 "러브호텔 저층에는 주로 위락시설이 함께 있어 낙찰가 외에 별도의 시설비 지출이 필요한 점도 투자자들로부터 외면받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갓가지 호박

15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태평양전시홀에서 열린 서울국제유미예전시회를 찾는 어린이들과 관람객들이 각각각색의 호박을 구경하며 신기해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신한금융지주, LG카드 새 주인 유력

국내금융 제 2인자 도약

신한금융지주가 LG카드 우선협상대상자로 유력해짐에 따라 명실상부한 국내 2위 종합금융그룹으로서의 자리를 확고하게 굳힐 것으로 보인다.

신한지주는 지난 4월 조흥은행과의 통합으로 은행분야에서 안정적인 수익기반을 확보한 데 이어 LG카드 인수를 통해 비은행 분야에서도 확고한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2001년 설립된 신한지주는 주력 계열사인 신한은행을 비롯해 제주은행, 코모닝신한증권, 신한생명보험, 신한카드, 신한캐피탈 등 11개 자회사를 거느린 종합금융그룹이다.

신한지주의 총 자산은 207조원 규모로 올 상반기 1조 721억원의 순이익을 올리며 사상 최대의 실적을 기록했다. 신한지주는 당장 LG카드 인수를 통해 상대적으로 취약했던 카드부문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신한카드(옛 조흥은행 포함)는 6월 말 현재 회원 수 600만명, 총자산 3조8천824억원 수준이지만 자산 11조원, 1천만 회원을 확보한 LG카드를 수중에 넣음으로써 카드업계 1위로 급부상하게 됐다.

금융권 관계자는 "신한지주가 LG카드를 인수하면 5조 6천억원대의 시너지가 예상된다"며 "LG카드의 우량고객

을 확보함으로써 카드시장 시장점유율이 30% 가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외환은행 인수를 통해 독주가 예상되는 국민은행과의 격차를 줄이면서 '리딩뱅크'로 경쟁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 것으로 금융권은 보고 있다.

그룹내 은행과 카드사간 교차판매를 통한 시너지 효과도 기대된다. 신한지주는 오는 10월 신한은행과 조흥은행 간 전산통합 작업이 마무리되면 공격적인 영업을 재개해 카드 및 은행의 외형을 확장한다는 계획이다.

신한지주 관계자는 "고객과 유통망을 확장하는 데는 카드 부문이 핵심"이라며 "앞으로 소매영업을 대폭 강화하고 1천만 고객정보를 활용해 교차판매를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신한지주는 LG카드 인수를 위해 응찰가를 주당 6만8천원대, 85%의 물량을 적어내 가격 및 비가격 요소에서 두루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신한지주는 인수자금 조달을 위해 국민연금과 배타적 약사(LOO)를 맺고 1조원 투자를 보장받았으며 우정사업본부, 지방행정공제회, 새마을금고 등 국내 투자자를 중심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한 상태다. /정필수기자 bungy@

업 체 명	모 집 분 야	자격 및 경력	연봉(만원)	마감일	연락처
동양생명보험	2006 하반기 신입 및 경력사원	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8/15	062-226-4904
뉴에이스	하나호텔레스토랑 고객센터 헤어파트 상담원	고졸/경력무관	1,800~2,000	08/16	031-267-1861
한국일스트	[광주/경기]각분야별 신입 및 경력사원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8/16	062-950-2113
(주)한국이.엘.에스	생산직 사원	고졸/경력무관	1,200~1,400	08/17	062-514-6464
서울검사	정규직 비파괴검사 직원	고졸/경력무관	1,400~1,600	08/17	062-369-0790
가기이직텍	사무실 단순경리	초대졸/경력무관	1,000~1,200	08/18	062-943-9904
한국소프트	한국소프트 생산직 남녀 신입사원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8/18	031-359-2100
(주)한샘	대리점 영업사원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8/18	062-383-1601
(주)알앤피코리아	한남방동산업 호남법인 정규직 영업사원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8/19	062-959-2663
(유)광산서비스센터	LG전자 A/S센터일반기재품수리 경력직 사원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8/19	062-512-6212
삼성정보문화개발	임원비서 및 사무보조원	고졸/경력무관	1,200~1,400	08/20	062-222-6628
(주)샘텍	광주영업소 영업사원	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8/20	02-2025-2532
(주)기영미스	분야별 정규직 사원(영업/대리점/텔레마케터/생산직)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8/20	062-952-9442
(주)세원	정규직 사원(OP, 검사요원, 품질관리부)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8/20	061-392-6300

(광주점코리아 512-6210 제공)

백화점 단골? 쇼핑 중독?

매일 가는 고객 336명...2~3일 한번꼴 3만2,991명

광주점 2~3일 고객 377명

롯데백화점 구매형태 조사

백화점에서 매일 물건을 사는 '쇼핑중독자'는 얼마나 될까.

15일 롯데백화점에 따르면 올 상반기 롯데카드와 롯데멤버스카드 활동 고객 255만명의 구매형태를 분석한 결과 영업일 173일 중 170일 이상 방문해서 물건을 산 고객이 336명에 달했다.

또 2~3일에 한번 꼴로 구매할 고객까지 포함하면 무려 3만2천991명이 백화점에 거의 '개근'한 셈이었다.

일반 고객들이 평균 두 달에 세 번 정도 백화점에서 쇼핑한 것을 감안하면 이들 '단골 고객'의 백화점 사랑은 지극한 수준이다.

단골 고객은 월 평균 구매액이 1인당 130만원으로 전체 평균 15만 원에 비해 8배 이상 많았고 평균 구매 단가도 10만9천원으로 역시 전체 10만7천원보다 컸다.

광주점의 경우 영업일 170일 가운

데 155일 쇼핑한 고객이 1명이었으며 100일간 샀은 사람도 1명으로 집계됐다. 2~3일에 한번 꼴로 구매한 사람은 377명이었다. 이들을 포함해 단골고객인 MVG(Most Valuable Guest) 1천300명의 월 평균 구매액은 142만원으로 나타났다.

단골고객들은 연령별로는 30대가 36.2%, 40대가 34.2%로 자녀를 학교에 보내고 시간 여유가 있는 30~40대가 70%를 차지했고 20대와 50대는 각각 10.0%, 19.1%였다.

몸집은 50대가 가장 커서 1인당 월 구매액이 150만원으로 40대의 124만원, 30대의 126만원보다 훨씬 높았다.

롯데백화점 관계자는 "카드 활용 고객 중 1.3%가 11.1%의 매출(2천587억원)을 올려주고 있으나 단골 고객에게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다"며 "단골고객에게 별도 공간을 제공하고 회원들간에 교류할 수 있는 다양한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고 말했다. /정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100불 벌어 66불 여행·유학비로 '평평'

상반기 서비스수지 적자 89억불·지난해보다 42% 늘어

올해 상반기 서비스수지 적자가 해외 여행과 유학 증가로 인한 여행수지적자 폭 확대로 대폭 늘어났다. 여행서비스 수입 규모는 상품수지 흑자의 66%에 달해 외국에 물건을 팔아서 남긴 100달러 중 해외여행이나 유학경비로 66달러를 사용한 셈이었다.

15일 산업자원부가 발표한 '올해 상반기 6월 서비스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상반기 중 서비스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6% 늘어난 244억7천만달러에 그쳤지만 수입은 17.6% 증가한 339억5천만달러에 달해 서비스수지가 88억8천만달러의 적자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서비스수지 적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2.3% 늘어났다. 부문별로는 해운, 항공 등 운수서비스는 89억9천만달러의 흑자를 기록했지만 지

난해 동기보다 57.4%(12억달러) 감소했다.

관광, 유학·연수 등 여행서비스 수지 적자는 57억9천만달러로 적자 규모가 지난해 동기보다 28.4%(12억8천만달러) 증가했다. 여행서비스 수입은 84억3천만달러로 올해 상반기의 상품수지 흑자 규모 128억달러의 66%에 달했고 지난해 동기보다는 17.2% 늘어났다.

방한 외국인인과 우리나라 해외 여행객의 1인당 지출 규모를 보면 방한 외국인은 지난해 상반기 927달러에서 895달러로 줄어든 반면 우리나라 해외 여행객은 1천239달러에서 1천242달러로 늘어났다.

무역중재, 운송료, 법률회계, 경영컨설팅, 연구개발 등 사업서비스 수지 적자는 30억2천만달러로 지난해 동기보다 9.8%(2억7천만달러) 증가했다. /연합뉴스

원재료·중간재 물가 5개월째 상승세

인플레이션의 선행지표 성격을 지니고 있는 원재료·중간재 물가가 5개월 연속 상승곡선을 그렸다.

1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7월 가공된 개별 물가동향'에 따르면 원재료·중간재 물가는 전월 대비 1.2% 올라 3월에 0.3% 오른 이후 5개월 연속 상승세를 기록했다.

상승률은 6월의 0.7%에 비해 다소 높아졌지만 5월의 1.8%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이다.

작년 동월 대비 상승률은 6.9%로 5월의 7.5%, 6월의 7.7%에 이어 3개월째 높은 수준을 이어갔다.

7월 원재료 물가는 3.0% 올랐으나 가공된 개별 물가동향에 따르면 원재료·중간재 물가는 전월 대비 1.2% 올라 3월에 0.3% 오른 이후 5개월 연속 상승세를 기록했다.

상승률은 6월의 0.7%에 비해 다소 높아졌지만 5월의 1.8%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이다.

상승률은 6월의 0.7%에 비해 다소 높아졌지만 5월의 1.8%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이다. /정필수기자 bungy@kwangju.co.kr